

## 패션의 노출과 은폐에 관한 고찰 - Freud의 정신분석학을 중심으로 -

임성민 · 박민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 The Study of Exposure and Concealment in Fashion - Focusing on the Freud's Psychoanalysis -

Sungmin Lim · Meegnee Park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4. 3. 15. 접수)

#### Abstract

Exposure and Concealment have been continued as important way to express fashion and theme as well, especially in women fashion. Exposure can make themselves attractive, and concealment emphasizes this way of being attractive by exposure. Besides the temptable effect of exposure, the ideology which put women next men in society has made a prominence on the fact exposure is significant theme in women fashion. It means that women's image of 'Being seen as Object' (this can be explained by relation passive between active) in society has driven female emphasize in using and focusing on exposure to be attractive. Also the other important thing in women fashion has been considered is concealment. The fact that society has demand women more chaste duty in detail may have meaningful thing in the condition that instigates women take off being attractive to the subject, considering ideology, men. Therefore attractive femininity has to be suggested by virtue and temptation, it is common sense that looking just shallow or too strict are far from criteria of ideal beauty. Namely, the concept for exposure coexists with concealment not only constructively but also naturally in fashion. Technique that can be accentuate for effective exposure differently from method to show unilaterally is needed, and this technique can promote new fashion. 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Freud, women means 'Absence (lacking penis)', this female's Lack Image induces male castration complex therefore 'Fetishistic Look' which transfers something phallic into specific things or parts of body is adopted, sort of object cathexis. This is revealed as some parts of women body are diverted into object for sexual love, symbolic equivalent. For example, women's parts like legs or breast are remarked as erotogenic zone and as time goes, when no more the zone are felt sexual by exposure, other somewhere felt mysterious (felt something sexual) used to be stressed by exposing. As it were, it can be possible that exposing part on women body (sexual part) moved as time passed because of what previously stated. Especially, the concept of exposure and concealment in women fashion should explain not only from a point of view of style for the beautifulness but also from wearer's immanent intention, further more relationship with ideology. About the present situation becoming bolder in women fashion, it is said that women express confidence as the position of women is elevated higher socially, the more women get freedom. But if we consider this psychoanalysis opinion mentioned ahead, the possibility can not be excluded that the exposure can get emphasizing according as the need of feminine modesty gets decreasing from ideal femininity society, men want. This study about exposure and concealment was made progressed through the theory of Freud who originated psychoanalysis, presented many theories. But nowadays contradictions are being brought up against Freud's theory including conventional philosophy like male chauvinism and adjust studies get suggested. Hereupon, there may be limitation in making no allowance of contradiction and following his theory.

**Key words:** Exposure, Concealment, Freud, Femininity, Ideology; 노출, 은폐, 프로이트, 여성성, 이데올로기

##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도 여성들의 노출이 과감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밑이 짧은 골반바지나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노출현상에 대해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사회학과)는 “벗었다고 옛날처럼 손가락질하는 게 이제는 촌스럽게 여겨지게 됐다”며 “대중이 욕망을 표출하는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였고,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누드가 상업주의와 연결돼 결국 여성의 몸을 상품화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고, 성상품화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한겨레신문 2003). 이처럼 노출에 대해 표현의 자유나 또는 여성의 성상품화 강조라는 의견들이 있다. 패션은 단순히 착용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산물이다. 특히 노출은 단순히 스타일의 변화가 아닌 사회에서의 착용자의 이미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패션은 타인을 의식하는 행위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남에게 어떻게 의식되어지는가를 신경 쓰고 이에 따라 옷을 입으려 한다. 누구나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원하며 이러한 ‘잘 입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임과 동시에 사회적 요구로 공동체내에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으로 자신을 꾸미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성을 유혹하기 위함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성의 관심을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에 호소하는 것으로(sex-appeal), 보여지는 개념인 패션에서의 ‘노출(exposure)’이 이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방법으로서의 노출을 위해서는 가리는 ‘은폐(concealment)’의 개념이 필요한데, 노출과 은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노출은 은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며 은폐 또한 노출의 개념이 있기에 가능하다. Flügel(1976)에 따르면 패션이 변화하는 주요 원동력은 정속성과 비정속성의 정신적 대립을 통해 발생한다고 한다. Flügel은 이러한 은폐(정속성)와 노출(비정속성)에 관한 인간의 갈등 욕구를 ‘양면성(兩面性)’이라고 하였는데, 이 양면성이 타인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작용하게 된다. 인간은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출하려는 욕망이 있는 반면 의복으로 몸을 가려 에로틱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인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은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노출을 통하여 남의 관심을 끌며 유혹을 시

도 하고자 한다. 하지만 특정 부위의 노출이 지속된다면 이는 더 이상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하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폐되어 있던 다른 부위로 사람들의 흥미가 이동됨으로써 노출 부위가 이동한다.

특히 패션에서의 노출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중요 테마였다. 이러한 노출이 남성에 비해 여성패션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성감대 부위에 따라 노출이나 과장에 의해 신체의 일부분을 강조하는 부위가 옮겨간다는 ‘성감대 이동설’(The theory of the shifting erogenous zone)을 말한 Westermarck (1922)는 여성의 성감대는 신체 여러 부위에 퍼져 있는 반면 남성의 성감대는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성패션이 남성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reud는 “보는 것이란 궁극적으로 만지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고 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 관음(觀音)의 특성이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노출은 남성에게 적극적인 유혹인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리고 패션에서 노출이 가지는 유혹의 효과와 함께 남성에 비해 주변인이었던 사회적 여성의 위치가 여성패션에서 노출이 주요 테마 중 하나로 부각되는 것을 강조해 왔다. 즉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남성에 의한 ‘바라봄의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는 적극적인 보여짐의 행동으로 노출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여성의 의상에 노출과 함께 강조되어 온 것이 은폐이다. 남성에 비해 은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구체적이며 컸던 것은 노출을 부추켜 온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성패션에서 노출이나 은폐의 개념은 단순히 ‘미(美)’를 위한 것 이외에 착용자의 내재된 의지 및 패션에 영향을 미친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서 그 본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일시적으로 패션에 나타난 현상이나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은 패션의 이론고찰은 이루어져 왔으나 노출과 같은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인 패션에 대한 연구는 현상고찰에 대한 양적 연구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 이에 패션의 중요 테크닉임과 동시에 테마인 노출과 은폐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통해 패션에 나타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 보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은 패션현상을 이해하고 패션이 단지 피상적인 현상이 아닌 원인에 따른 결과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패션현상에 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들이 패션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여 줄 것이라 생각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패션의 주요 테마인 노출과 은폐에 대한 고찰로 질적연구의 형태를 띠며, 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하여 패션에서의 이러한 현상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노출, 은폐와 관련한 패션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뚜렷하므로 연구대상은 여성패션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현상고찰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패션은 자신을 표현하는 주관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사회의 이데올로기 특히 유행에 영향을 받는 개념이다. 패션은 개인적인 자아에 따른 의식적인 행동이면서 이러한 의식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적인 행동이면서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패션의 본질적 성격에 착안하여 노출과 은폐라는 사회적 현상의 분석방법으로 정신분석학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출'의 개념은 이벤트 성격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노출이나 나체의 개념이 아닌 패션에 나타난 노출로 한정하였다. 또한 현재에도 차도르를 착용하는 중동의 많은 여성들에 있어 '은폐'는 종교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이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패션에서의 은폐'와는 차이가 있다.

## III. 본 론

### 1. 노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식과 무의식의 결과라고 말한다. 인간에게는 내재되었거나 인식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의식들이 특정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패션에서 실용적인 이유나 미적인 이유에 앞서 '노출'이 중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어떤 인식들에 의한 영향이다. 노출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인간은 모태로 회귀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평화와 풍요의 상징인 모태로의 동경은 생명의 근원지에 대한 동경

과 일치하며 나체는 그것이 허용되었던, 즉 완전을 의미하는 모태 속의 모습이다. 착의가 요구되는 사회에서 모태로의 동경은 나체 상태를 원하게 하는데, 금기와 억압이 많은 문명화된 사회에서의 나체상태란 불가능하므로 '나체상태로의 다가감'으로서의 노출은 현재 잃어버린 향수와 금기과과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패션에서의 노출은 이성에게 보여지는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간이 에로틱한 의상을 필요로 하는 동기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자손을 번식시키고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에로티시즘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출의 미학을 향유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르시시즘에서 찾기도 한다. 즉 자기 몸에 대한 사랑과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출에 탐닉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몸(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개성을 표출하고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인간에게 있어 노출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수단이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성'에는 매우 높은 나르시시즘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의상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Freud(1914)는 여성은 페니스 선망의 영향으로 신체에 대한 허영심이 강하게 나타나며,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보다 훨씬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여성들은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성에게 사랑 받으려는 노력은 노출을 포함한(또는 강조한) 의상의 유행을 가져온다.



Fig. 1.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 1972년, 국내

## 2. 은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노출과 함께 ‘은폐’ 또한 남성패션과 비교한 여성 패션에서의 특징이다. Freud(1909)는 이에 대해 특별히 여성적 특성으로 여겨지는 수치심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습적인 것으로, 이는 페니스의 부재를 덮어버리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Lacan에 따르면, 여성의 입장은 ‘숨기는 방식’ 즉 베일을 다루는 방식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몸을 가리는 정숙한 행위라는 것이다(Nasio, 1994). 또한 자신의 의도에 의한 것이어서 은폐는 육체를 자연스럽게 연장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며, 이러한 것은 여성에게 일반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대 그리스의 무녀들이나 장례에서 여성들이 베일을 이용해서 자신을 가리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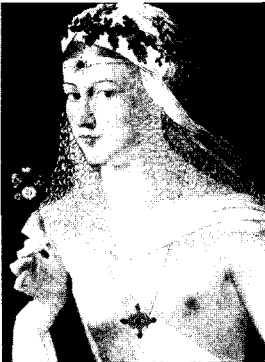


Fig. 2. The portrait of woman - Flora, Bartholomew Benedetto, Frankfurt National Gallery



Fig. 3. Woman in front of mirror, Giulio Romano, Pushkin Gallery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능숙한데 이러한 것에 여성의 전형적인 숨기는 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여자는 감출 때 타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감추듯이 감춘다(假裝). 단순히 타자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은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는 이 사실로 자신의 신비를 엿보일 수 있게 한다. 반면 남자를 감출 때 다른 사람의 눈을 고려하여 감추는데 결과적으로 남자는 (보여주지 않고) 은폐하는데 집착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는 행위가 명확히 드러난다(가렸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실제로 여자는 숨길 때 신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남자의 은폐는 그렇지 못하다. 여성의 은폐는 노출(보여짐)을 위한 은폐일 수 있다. 정숙성을 비롯한 신비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Martin은(1988) 신체노출과 은폐 즉, 여성의 의복으로 감싼 정숙한 육체와 그 의복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의복은 오히려 은밀히 노출된 신체를 암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얇은 비단은 한쪽 가슴을 드러낸 채로 다른 한쪽 가슴은 실핏 덮여 감추고 있다. 보이면서도 감춘다는 베일이 가진 에로틱한 역설이다”. “베일의 패러독스, 욕망의 대상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페트라르카적인 주체에게 있어서 베일은 절호의 소재가 된다. 베일너머로 감추어 듯 보이는 것은 라우라의 얼굴이다”(Atusi Okada 1997, ‘Runesanu ni Bizinron’).

에나 지금이나 관습화된 매력적인 여성성(femininity)은 정숙성과 유혹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



Fig. 4. Gucci, 1996 fall women's ready-to wear

너무 딱딱하거나 천박해 보이는 것은 이상적인 ‘미’의 기준에서는 거리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패션에서는 형태적으로나 본질적으로 은폐와 노출의 개념이 함께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보여주거나 가리는 방식이 아닌, 유혹을 위한 효과적인 노출을 강조하는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기술이 새로운 패션을 조장할 수 있다. 특히 시각적인 효과와 관련하여 노출된 신체부위에 따른 (노출과 은폐의)경계선이 주어지는데 이 경계선은 유혹을 유발시킬 있다. 인간에게는 ‘경계초월’에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미니스커트의 단선이나 가슴부위를 부분적으로 노출시켜 경계를 지은 의상은 에로틱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나체보다는 신체의 한 부위가 노출된 모습에서 더욱 에로틱함을 느낀다고 한다. 슬래쉬가 깊게 파인 옷<Fig. 4>, 시스룩(see through look)스타일이나 속옷을 겉에 입는 패션의 경우 가리고는 있지만 은폐를 노출한다는 개념으로 에로틱함이 강조되어 완전한 노출보다 색시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으로 부각되어 왔는데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패션에서 노출과 은폐의 기술을 요구해 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 3.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따른 여성의 은폐와 노출에 관한 접근

어떤 사회든지 계층이 있으며 이러한 계층은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성을 결핍의 존재로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말한 Freud(1909)나, 사회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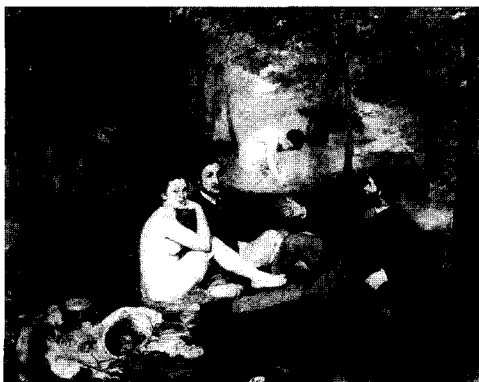


Fig. 5. 'Le Dejeuner sur l'herbe' Edouard Manet, Orsay Museum, 1863.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가부장제이론(Advanced Seminar on Patriarchy)을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남성의 권력이 여성보다 컸던 것은 사실이다. 19세기 중반부터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경제적 능력이나 정치개입의 정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변화이외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근본적인 남녀의 권력 구조가 평등하지는 않다는 것이 Walby(1990)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이다. 또한 Moi (1985)는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지려고 노력한 1세대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2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차이를 인정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해온 것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변화가 쉽지 않아서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이데올로기는 사회구성원들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마르크스주의 문화비평가인 Berger(1985)는 시선(視線)과 관련하여 이는 권력을 수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부장제적 사회가 여성을 남성시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며, "남성은 보고 여성은 보여진다. 남성이 바라보는 것이 여성이라면 여성이 보는 것은 바라보이는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다"고 말한다. 여성은 남성 욕망의 대상이라는 관점을 내면화시키는 여성의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리하여 여성의 정체성은 자신의 관찰자이며 동시에 관찰 당하는 자라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속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데 역사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많이 그려지며 특히 보이는 대상으로의 오브제로서 그림의 소재로 선택된다.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식사'는 중간색이 없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조화로 보는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Fig. 5). 특히 관객의 관심을 끄는 것은 시선이 관객에게로 향해져 있는 나체의 여인이다. 빛에 의한 색의 대비를 위해 나체의 밝은 색이 택하여 졌다는 작가의 설명처럼 색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시선을 바라는 듯한 나체의 여인이기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착의상태의 두 남성은 관객의 입장처럼 착의이며 시선을 위한 대상은 아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관객이 없어도 자연스러운 반면 여성의 경우는 관객의 시선이 없을 경우 어색함이 느껴질 것이다.

즉 여성에게 노출과 은폐는 보여주기 위한 개념이며,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보여지는 역할이



Fig. 6. Britney Spears at 2000 MTV Video Awards



Fig. 7. Jennifer Lopez in Versace at 2000 Grammy Awards



Fig. 8. Kylie Ann Minogue in Music Video, 2001

강조되어왔다. 여성은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에 매력적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패션에서 노출의 정도가 대담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자유를 획득함에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회, 특히 남성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성에서 정숙성이나 신비에 대한 요구가 낮아지면서 노출이 부각됐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여성 대중스타의 무대 위 패션이 좀 더 과감해 졌으며<Fig. 6, 7, 8> 거리의 여성들도 과거에 비해 노출에 대해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4. 정신분석학을 통한 노출부위 변화에 대한 고찰

Pudofsky(1974)는 인간은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매혹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신체를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며 이를 옷을 사용하여 육체를 지속적으로 재포장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패션을 통해 신체를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며 이러한 노력은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의 하나로 앞서 언급한 사회에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위치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와 남성들의 응시는 여성들의 패션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특히 정신분석학적인

응시개념은 이미지를 남성이배라는 틀 속에서 구성된 것으로, 성별로서의 남성이 실제적인 문화와 문화적 이미지의 생산을 통제할 제도적(정치적·경제적) 권력을 여성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이데올로기의 형식과 내용을 통제할 권력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Coward(1977)는 특히 패션산업이나 광고 등에서 남성에게 의한 이데올로기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더욱 수동적으로 길들여져 있다고 강조한다. 남성적 응시이론(Male Gaze Theory)에서 '남성적 응시'는 여성들이 남성들이 혹은 사회가 정해 놓은 미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남성(또는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고 남성의 욕망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사회적 함축을 갖고 있다. Lacan의 정신분석학을 적용한 Mulvey(1975)의 '남성적 응시(Male Gaze)'이론에는, "권력관계는 시선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여성의 권력 없음은 '보여지는' 존재로서 규정된다"며 남성의 바라보기는 '쾌락'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패션의 변형 양식 또한 주체/객체, 남성/여성 간의 철학적 대립에서 유래하는데, 특히 여성은 자신들에게 수동적인 표현의 매개체이자 바라봄의 대상이자 쾌락으로 이루어진다(Berger, 1985). 패션은 착취적인, 권력적인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표현과 관행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사회에서 '여성성'은



Fig. 9. Garçonne in Welly Sceeurs, 1926.



Fig. 10. Lee Miller (actress), in Vionnet 1930.



Fig. 11. Elizabeth Hurley (model) in Versace, 1994.



Fig. 12. Christina Aguilera & Britney Spears (pop singers), 2003.

여성의 신체가 바라봄에 의해 자각되는 방식에서 정의되므로 여성의 특성과 지위는 외모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패션은 여성신체를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을 야기 시키거나 따르는 관행들이다 (Betterton, 1987).

그리고 Mulvey에 따르면 가부장제 하에서의 남성은 성적인 주체로서, 여성은 성적인 대상으로 형성된다. 그런데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는 항상 남성에게 쾌락만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 Freud(1909)와 Lacan(1932)의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근 부재로 인한) ‘결핍’이고 이러한 여성 결핍의 이미지는 남성에게 거세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선’으로 특정 물체나 신체 부분에 성적 의미를 부여하는 ‘물신주의적 시선(fetishistic look)’을 채택한다. Freud(1909)의 물신주의는 거세에 대한 부인과 거부로부터

나온다. 소년은 어머니의 잃어버린 페니스를 상징적 대체물로 바꾸어 버린다. 이로 인해 자신의 거세공포를 극복한다. 이처럼 남성은 거세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정 여성신체의 부분(다리, 가슴)에 남근을 암시하는 것이 있다고 간주해 버린다.

이는 여성의 신체나 신체의 한 부분을 성애(性愛)화 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나 가슴과 같은 여성 신체의 부분에 강조한다. 이러한 물신주의적 시선은 광고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은 입술, 다리, 머리카락, 눈, 손으로 파편화되어 나타난다. 반면 남성들이 파편화 되는 경우는 훨씬 적다 (Walters, 1995). 패션에서 이러한 파편화된 부분의 강조는 은폐와 노출에 의해 강조되어질 수 있다. 즉 남성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편안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성이 페니스를 제외한 남성과의 차이를 극

명하게 보여주는 곳, 예를 들어 풍만한 가슴이나 얇고 긴 다리와 팔과 같은 부분의 노출은(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른 부분의 은폐와 함께) 남성에게 거세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쾌락적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Sawchuk(1987)은 패션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신체에 반영된 것이며 여성은 패션과 관련하여 잃어버린 남근의 대용품으로 해석하는 단순화된 개념들을 구성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20년대에는 다리가 성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었으며 <Fig. 9>, 30년대는 20년대에 비해 등이 성적으로 느껴져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여성들이 이를 강조하기 위해 등이 깊게 파인 옷을 선호하였다(Fig. 10). 90년대는 가슴이 성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Fig. 11>, 풍만한 가슴 이외에도 로리타적인 느낌의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민약한 가슴도 성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날씬한 허리와 배꼽부분이 섹시한 코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좀더 직접적인 느낌의 섹스어필로 아래까지 깊게 판 골반바치가 유행하고 있다(Fig. 12).

#### IV. 결 론

여성패션에서 노출은 자신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보이게 하고 은폐는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주요 표현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노출과 은폐에 대해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자궁회귀 욕구가 당시 상태인 나체를 원하게 하고 노출은 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패션에서의 노출은 에로틱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하여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에로틱한 의상을 필요로 한다. 이외에 노출을 즐기는 심리를 나르시시즘에서 찾기도 하는데 자기 몸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의지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출에 탐닉한다. Freud(1914)는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성에 높은 나르시시즘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노출과 함께 여성패션의 특징인 은폐 또한 페니스의 부재를 덮어버리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Lacan에 따르면,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리는 정숙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의도에 의한 것이어서 감출 때 타자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성에 비해 주변인이었던 사회적 여성의 위치가 노출과 은폐가 여성패션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것을 강조해 왔다. 즉, 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바라봄의 대상'으로의 이미지는 노출을 부추기는데 영향을 미치며 매력적이 여성성을 보여주기 위해 은폐의 개념이 함께 공존한다. 또한 Freud(1909)이론에 따르면 남근 부재로 인한 여성의 결핍 이미지는 남성에게 거세공포를 유발하는데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물신주의적 시선을 채택한다. 이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성애(性愛)화 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리나 가슴과 같은 여성 신체의 부분을 강조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또 다른 부위의 노출이 강조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패션에서 노출의 강조부위가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주로 에로티시즘에 국한되어 설명되어온 패션의 노출에 대해 정신분석학의 틀을 이용하여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노출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인 은폐를 정신분석학 개념에서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현상에 미치는 이데올로기를 고려하여 본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 V.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통한 노출과 은폐를 고찰하였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며 많은 이론을 제시한 Freud의 설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하지만 최근 남성 우월적인 철학전통을 따르고 있는 Freud에 대한 모순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정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Freud가 갖는 한계나 모순을 감안하지 않고 전통적인 Freud를 그대로 따른 것에 본 연구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패션에서 노출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위함인지에 착안하여 연구의 주제를 선택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출이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보여짐의 대상으로서의 강조로 보여진다. 과거에는 여성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했지만 사회적 관습으로 노출은 현재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현재 여성의 노출이 자연스러운 것은 과거에 비해 노출에 대한 사회(특히 남편)의 제재가 약해졌으며, 관음과 여성의 과시(드러내기)가 강조되는 것은 '대중'이



라는 불특정 다수를 유혹하기 위함이란 생각도 든다. 이는 각종 광고, 잡지, 텔레비전, 영화 등의 텍스트에 의해 조장되어졌을 것이다.

노출과 은폐에 대한 정신분석학 이외에 다른 사회 분석방법으로 분석하거나, 노출과 은폐 이외의 유행이나 패션현상 등,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패션에 대한 질적분석의 본질적인 탐구가 시행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Atusi Okada. (1997). *Runesanu ni Bizinron*. Jinbun Shoin Inc. 오근영 옮김, 르네상스의 미인들. 가람기획.
- Berger, John. (1972). *Ways of Seeing*. London: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harmondsworth: penguin.
- Berger, John. (1985). *The Sense of Sight*. New York: Pantheon.
- Bernard Pudofsky. (197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ew York: Anchor books.
- Betterton, Rosemary. (1987). *Looking On: Images of Femininity in the Visual Arts and Media*. London: Pandora press.
- Coward, Rosalind & John Ellis. (1977). *Language and Materialism: Developments in Semiology and the theory of the Subject*.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 Flugel, J. C. (1930).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 Hogarth press and the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전집 3*. 임홍빈, 홍혜경 옮김, 열린책들.
-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전집 9*. 임홍빈, 홍혜경 옮김, 열린책들.
- Freud, Sigmund. (1997). *프로이트 전집 13*. 윤희기 옮김, 열린책들.
- Jennifer Craik. (2001). *The Face of Fashion*. 정인희 외 2인 옮김(2001). 패션의 얼굴, 푸른숲.
- Laura Mulvey. (1989). *Visual and Other Pleasure*.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 Michael R. Soloman. (1985). *The Psychology of Fash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New York University.
- Moi, Totil. (1985). *Sexual/Textual Politics: Feminist Literary theory*. London: Methuen, 임옥희 외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 Nancy Etoff. (2000). *Science of Beauty*. 이기문 옮김, 미, 가장 예쁜 유전자만 살아남는다. 살림 출판사.
- Nasio, Jean-David. (1994). *Clnq lecons sur la theorie de jacques Lacan*. Editions Payot & Rivages. 임진수 옮김. 자크라캉의 이론에 대한 다섯편의 강의. 교문사.
- Richard Martin. (1988). *Fashion Surrealism*. London: Thames and Hudson, p. 120.
- Rosalind Coward. (1985). *Female Desire: How They are Sought, Bought, and Packaged*. New York: Grove press
- Sawchuk, K. (1987). 'A tale of inscription/Fashion Statement', in A. Kroker and M. Kroker(eds), *Body invaders: Panic Sex in America*, New York: St. Martins.
- Sigmund Freud. 임홍빈, 홍혜경 역 (1997). *프로이트 전집*. 열린책들.
- Sigmund Freud. (1994).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Francette Pacteau, The Symptom of Beauty*, London: Reaktion Books.
- Slivia Walby. (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Inc.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Susanna D. Walters. (1995). *Material Girls: Making Sense of Feminist Culture theory*.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김현미 외 3인 옮김,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또 하나의 문화.
- Toby Fischer-Mirkin. (1987). *Dress Code: Understanding the hidden meanings of women's clothes*. 허준, 안중설 옮김. 패션속으로, 새로운 사람들.
- Valerie Mendesm. (2003). *20th century fashion, Amy de la haye*. 김정은 옮김. 20세기 패션. 시공사.
- Valerie Steel. (1985). *Fashion & Erotic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7-32.
- Westermarck. (1922). *His History of Human Marriage*. London: Macmillan and Co.

## 사진 출처

- Fig. 1. 주간매일(제867호) 2000, 6. 8, '노출패션-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분석' <http://www.imaeil.com/week/news/past.php>
- Fig. 2. 르네상스의 여인들(Runesanu ni Bizinron), 오카다 아쓰시, 오근영 옮김, p. 90.
- Fig. 3. 르네상스의 여인들(Runesanu ni Bizinron), 오카다 아쓰시, 오근영 옮김, p.115.
- Fig. 4. Fashionnews, 1996.
- Fig. 5. French 'Orsay Museum' official homepage <http://www.musee-orsay.fr>
- Fig. 6. Entertainment, December 22/29, 2000. p. 88.
- Fig. 7. Entertainment, December 22/29, 2000. p. 58.
- Fig. 8. 'Can't Get You Out Of My Head' of Kylie Ann Minogue 8th album 'Fever' in Music Video, 2001
- Fig. 9. 20세기 패션(20th Century Fashion),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시공사, 김정은 옮김, 2003.
- Fig. 10. 20세기 패션(20th Century Fashion), Valerie Mendes, Amy de la Haye, 시공사, 김정은 옮김, 2003.
- Fig. 11. Fashion (The century of Designer), Charlotte Seeing, konemann, 1999.
- Fig. 12. Christina Aguilera's official homepage, <http://www.christinaaguilera.com>